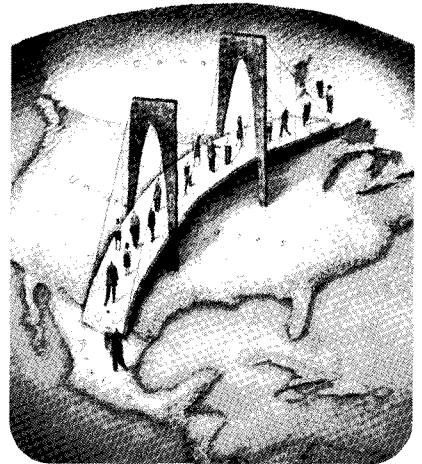


전기전자 제품 에너지 효율, 어린이용품 안전 등, 해외 기술규제 증가에 적극적인 대처필요

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2004년 이후로 연평균 18.5% 증가

개요

-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, 세계무역기구(WTO)에 통보된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 통보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
-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2004년 이후 연평균 18.5% 증가하였으며, 금년에도 2009년도 수준의 증가 예상
- ※ 771('05년) → 875('06년) → 1,031('07년) → 1,251('08년) → 1,490('09년) → 1,108('10. 9월말)



해외 기술규제 추세

- 선진국의 경우 에너지효율 강화, 신기술 인증, 안전기준 강화 등이 기술규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반면, 개도국의 경우 식품 분야의 라벨링(labeling)이나 포장규격 관련 규제가 큰 비중을 차지
- 선진국의 기술규제 통보건수는 감소하는 반면 개도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
 - 중·남미 국가,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의 통보문수(388건)가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'10년 통보문의 35% 점유
 - ※ '10년 3/4분까지의 통보문 건수는 개도국이 888건(80%), 선진국이 220건(20%)
 - ※ 걸프협력회의(GCC) 회원국: 사우디, 바레인, 카타르, 쿠웨이트, 오만, UAE

업종별 기술규제 현황

- 업종별로는 식·의약품 분야 331건(29.9%), 전기전자 분야 173건(15.6%), 수송물류 분야 152건(13.7%) 순으로 나타남(2010. 1~9월)
 - (식·의약품 분야) 총 42개국에서 331건의 기술규제가 통보되었으며 우간다, 바레인, 카타르 등의 순으로 통보건수가 많음
 - (전기전자 분야) 총 29개국에서 173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하였으며 에너지효율, 제품안전 인증절차 및 인증기관 규제내용이 가장 많으며 사우디아라비아, 칠레, 미국 등의 순임
 - (건설 분야) 총 18개국에서 73건을 통보하였으며, 건설재료 45건, 건축안전 15건이며, 케냐, 프랑스, 그루지아 등의 순임
 - (생활용품 분야) 총 62건으로 완구 및 어린이 용품 관련이 19건이며, 통보국은 총 11개국이며 미국이 7건으로 가장 많음
 - 미국의 통보문은 모두 완구 및 어린이 용품에 관한 것으로 제품 안전기준 및 인증기관 요건 등을 강화하는 내용임
 - (수송·물류 분야) 총 31개에서 152건을 통보하였으며 이중 자동차 관련이 116건이며, 미국, 쿠웨이트, 사우디, 오만 순임
 - 자동차의 안전성 및 환경 기준에 관한 규제내용이 대부분
 - (화학·세라믹 분야) 총 29개국에서 88건을 통보하였으며, 화학물질이 37건, 화학 세라믹이 18건이며, 이스라엘, 케냐 순임

향후 대응방안

- 이와 같이 세계 각국이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 필요
 - 각국의 기술규제 최근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파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관련 국가의 양자 협의, WTO/TBT 위원회 활동을 강화할 필요
 -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그동안 WTO/TBT 위원회에 한국 대표로 참여하고 국내 TBT 중앙사무국 및 TBT포털을 운영해오고 있음
 - 앞으로도 기술표준원은 농림부, 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, TBT 정보제공 및 중소기업 컨설팅, 양자·다자 협의 등을 통해 해외 무역기술장벽 제거에 앞장설 계획임